

한국 오픈도어선교회 사역자 모집(전임)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믿음 안에 굳세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사역하고 있는 한국 오픈도어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북한선교에 헌신할 사역자를 구합니다.

모집인원

1) 현장 선교사 (여성 사역부분 : 0명 / 일반 사역부분 : 0명)

- ▶ 주요업무 : 선교회에서 지정하는 현장사역을 수행 (개별 협의)
- ▶ 교회 및 노회(지방회)의 인정을 받는 선교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분
- ▶ 교육부 인가의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M. div)를 받은 분
- ▶ 중국어 가능자 우대
- ▶ 여성사역부분의 경우 여성만 지원 가능하며 독신자 우대
- ▶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열정이 있으며, 특히 북한선교에 헌신된 자
- ▶ 연령 : 45세 미만 (예외 가능)

2) 미디어 사역자 (0명)

- ▶ 주요업무 : 각종 라디오 및 미디어 선교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선교 콘텐츠 개발
- ▶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열정이 있으며, 특히 북한선교에 헌신된 자
- ▶ 지역교회에 소속된 세례교인으로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자
- ▶ 미디어 관련 유경험자 (작가, PD 등) 및 관련 학위자 우대
- ▶ 신학 학위자 및 목회자 출신 우대

제출서류

- ▶ 이력서 및 신앙고백서
- ▶ 추천서 2부,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증명서 사본 (면접 시 지참)

기관소개

- www.opendoors.or.kr 와 www.opendoors.org 사이트 참조
- 사역 조건 - 국내근무 : 월~금, 09:00~18:00, 4대보험적용, 급여는 개별 협의
- 선교 파견자는 선교회에서 사역비를 지원하며 구체적 내용은 개별 협의함
- 모집기한 : 구인시까지
- 문 의 처 : 이제나 간사 : 010-4668-6356 / 이메일: info@opendoors.or.kr
- 서류제출 : 이메일 info@opendoors.or.kr
- 우 편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한국 오픈도어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07056)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 TEL 02-596-3171 ■ info@opendoors.or.kr ■ Home Page www.opendoors.or.kr

■ 후원계좌(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18년 4월 1일

북한 개발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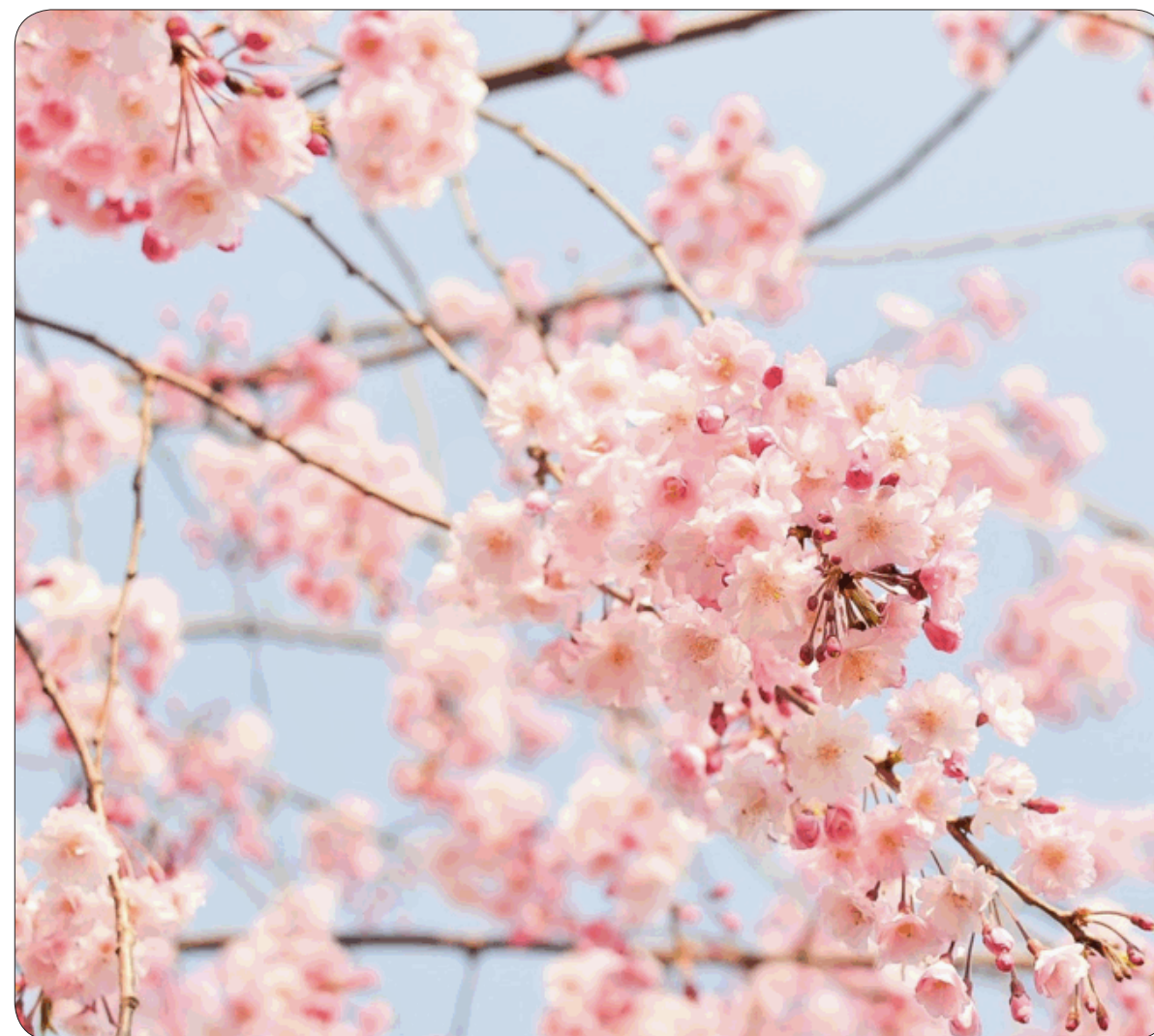
04

2018 April

통권 150호

| 이달의 주제 |

북한 마약 문제 실태



한국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월간 **북한 개발 소식** 2018 April

CONTENTS

이달의 주제 :
북한 마약 문제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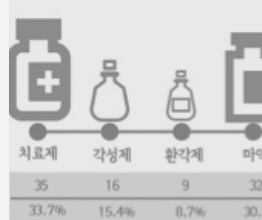


01

권두칼럼
북한 마약 사용 실태와 -
선교적 대안

10

칼럼 1 · 임순희
북한 마약 실태



18

특별인터뷰
'엄마, 나 한 코만'

25

탈북민 수기 · 드보라
나의 출애굽기(2)



32

북한소식



38

서평
햇볕 장마당 법치



40

기도제목



5. 중국 내 북한 난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동북아시아의 정치적 지형이 변화하는 와중에도 여전히 탈북자들에 대한 체포와 복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복송하는 중국의 정책으로 인해 많은 탈북자들이 부모를 잃고, 자녀를 잃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습니다. 분단의 역사 가운데 화생된 탈북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을 돕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조선족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중국 당국이 하루 속히 탈북자에 대한 정책을 바꾸어 강제 복송을 중단하도록 기도합니다.
6. 선교 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반도 화해 분위기와 함께 오랜 대북제재 등에 따른 북한의 변화가 국경지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비록 여전히 현장 상황은 어렵고 북한과 중국의 각종 감시와 공작 활동 등으로 인한 위험도 여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대합니다. 현장의 사역자들께서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다가오는 위험을 잘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어떻게 변화될 지 모르는 현장의 상황들에 잘 대응하여 더 큰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7. 대북 라디오 선교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밤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철책 너머 북으로 전파를 통해 송출되고 있습니다.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 은밀하게 라디오를 청취하는 성도들과 주민들에게 더 좋은 방송, 더 깨끗한 방송이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픈도어 라디오 사역 및 극동방송과 북방 선교방송 등 라디오 사역 단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봉사하시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송출되는 전파가 깨끗하고 선명하게 북한의 성도들과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한국 오픈도어
전 세계 막대한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www.opendoors.or.kr

* E-mail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18년 4월 1일



북한 마약 사용 실태와 선교적 대안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북한과 마약, 언뜻 보아서는 그리 관련 있는 주제가 아닌 것 같다. 일반인들이 마약이라는 소재를 북한과 연관해서 생각하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북한 내에 마약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소비되고 있다는 것이 최근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또한 조중국경지역을 중심으로 마약이 은밀하게 거래, 유통된다는 관련 뉴스 보도들도 있었다.

사실 북한 마약 문제는 국내에서는 논란이 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의 마약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는 반면 또 어떤 이들은 북한을 악마화하고 북한 주민들을 비하하는 목적으로 일부러 퍼트린 유언비어로 간주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마약’의 특성상 유통이나 소비 등 관련 활동 대부분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다가 북한 체제의 폐쇄적 특성 때문에 실태 파악이 어려운 것도 이러한 논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최근 탈북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와 국경지역 탐방 등을 토대로 신뢰할만한 학술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북한 마약 실태가 대략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동시에 사태의 심각성도 드러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건강권을 생각할 때, 더 나아가 마약이 미치는 사회적 파장과 이후 통일을 생각할 때, 북한 내에 마약이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는 현상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비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오늘 이 글에서는 북한 마약의 실태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파악된 사실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통일 한국에 미칠 영향과 대응책, 더 나아가 북한 선교를 위한 재언을 마련하고자 한다.

북한 마약의 역사

북한은 오랫동안 마약을 생산하여 판매, 유통시켜서 외화 획득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70년대부터 여러 건의 마약 밀매 시도가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외교 공관원들을 통한 마약 밀매가 많았다.

〈표1〉 북한의 마약 범죄 사례 (1960 - 2000년대)

년도	사례
1979.5	라오스주재 북한 공관원, 마약운반 중 체포되어 강제 추방
1979.8	라오스주재 북한 공관원, 마약 밀반입 및 대금 운반 중 체포되어 추방
1979.11	인도주재 북한 공관원, 공항으로 대마초 15kg 밀반입 기도하다 적발, 강제 추방
1980.2	이집트주재 북한 공관원 2명, 외교행낭 통해 헤로인 4백kg밀 반입 기도하다 적발, 강제추방
1985.10	동독주재 북한 공관원, 헤로인 1백50포대 몰핀 1백50kg밀 반입 기도하다 적발, 강제추방
1985.12	파나마주재 북한 공관원, 마약 불법 판매혐의로 강제추방
1991.3	스웨덴주재 북한 공관원, 마약밀반입기도하다 체포, 구속
1994.6	블라디보스톡에서 불법 마약거래 혐의로 북한 정보원 2명 체포
1995.1	중국 상해에서 북한 공관원 마약 6kg 소지 및 밀매혐의로 체포
1995.7	북한 사회안전성요원의 중국 연길에서 헤로인 500g을 밀반입하다 적발
1996.7	잠비아주재 북한 공관원의 코카인 2.4kg밀매혐의로 체포
1996.11	블라디보스톡에서 북한 공관원의 아편 22kg(80만달러 상당) 밀반입 혐의로 체포
1997.4	일본당국의 북한 마약운반 화물선 「지성-2」호(선장 맹송철) 적발, 각성제 등 마약류 70kg 운반혐의로 수사
1997.5	중국 요녕성에서 마약밀매(9백g)혐의로 북한인 8명 체포
1997.7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에서 북한인 벌목공의 아편 5kg 밀매 기도하다 적발
1998.1	멕시코주재 북한 대사관원 2명의 코카인 35kg 러시아로 밀반입 기도하다 적발
1998.7	시리아주재 북한 외교관 2명의 아프리카 카이로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50만정 밀반입 기도하다 적발

윤 황. 2007.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의 쟁점: 북한의 국제범죄 유형과 특징”, 통일문제연구 19권 1호, p 125 표에서 발췌

80년대 말부터는 북한에서 마약을 대대적으로 제조하기 시작했다¹. 북한에서 주로 만들고 거래해온 마약 중 하나는 바로 아편이다. 아편은 그 자체로도 마약일 뿐 아니라 헤로인 등 중독성이 더욱 심한 마약의 원료가 된다. 북한에서 아편을 대대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한 건 1987년부터이며, 함북 단천군과 여러 지방들에서 몰래 아편을 재배해왔다. 1990년 1월 8일부터 김일성과 김정일에 의해 대흥단종합농장과 백암종합농장에서 대대적인 아편농사가 시작되었다. 마약밀매는 북한 군부소속 회사나 당 회사인 38호실과 39호실에서 많이 하고 있다. 1992년부터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사실상 국가적으로 공식 사업화하여 마약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김정일은 양귀비 재배사업을 ‘백도라지사업(White Beiflower)’이라 하였으며, 100만 달러 이상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백도라지 영웅’ 칭호를 부여하였다. 요덕수용소 근처의 마약 재배지가 2001년 이후 15배가 늘었을 정도로 북한은 정치차원에서 마약을 직접 재배하고 있다. 무기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외화벌이 판로를 마약으로 삼고 있다.

1 송봉규. 2015. “북한의 국제범죄 확산과 전망”, 한국경찰학회보 55권 0호, p 159.



2011년 5월 3일 국제엠네스티를 통해 공개된 요덕정치범수용소 위성 사진. 위 사진을 분석한 일부 전문가들은 경내 아편 경작지가 약 33만m² 가량 면적이 확대되었다고 주장했다. (출처: 조선일보)

아편 외에 북한 정부는 소위 ‘필로폰’, ‘히로뽕’, ‘빙두’ 등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도 대량으로 생산해서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0년에는 북한 군 보위사령부의 지시로 북한산 최고급 필로폰이 밀매된 것이 확인되었다². 판매액 30%를 당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공작금으로 사용하였다. 2012년 해외에 체류 중인 북한 의사들이 병원을 거점으로 마약을 밀매하여 외화벌이 수단으로 의사들을 활용하며 마약 제조뿐 아니라 밀거래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³. 북한은 높은 품질의 수출용 메스암페타민을 최대 10~15톤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북한의 엄청난 메스암페타민 생산능력은 아시아에서 특히 태국, 일본, 필리핀 등보다 최근에는 캄보디아, 중국에서 메스암페타민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한 상황과도 일맥상통한다⁴.

이렇게 북한의 마약 제조 및 유통 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한 마약의 심각성이 다시금 거론되고 있는 이유는 이전과는 다른 북한 마약의 유통 및 사용 현황에 있다. 기존에는 북한 정권이 외화벌이 목적으로, 즉 해외에 판매할 목적으로 마약을 은밀하게 생산, 유통시켜왔다면 최근의 마약 문제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유통되고 소비되고 있다. 즉 북한 주민들 사이에 마약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안드레이 란코프와 김석향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서 기존 국가 공장들 또는 민간에서 불법적으로 생산된 마약이 북한 내에 대량으로

2 “북한의 외화벌이...공작원이 '마약 밀반입' 시도”, 「SBS뉴스」, 2010.05.25

3 “중국내 북한 의사들, ‘마약 밀매’ 현장 포착”, 「KBS뉴스」, 2012.07.02.

4 INCSR, March 2000, p. VIII-39 and CRS Report RL32167 (archived), Drug Trafficking and North Korea: Issues for U.S. Policy, by Raphael Perl, pp. 8-9.

유통되고 주민들의 마약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⁵. 위 연구에서는 그 시기를 탈북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2003년에서 2007년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⁶. 주로 생산 및 거래되는 마약은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이다. 메스암페타민은 제조가 비교적 간단하고 특별한 화학 기구들이 필요하지 않아 민간에서도 만들기 쉬운 마약이다.

메스암페타민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심각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고 사람의 몸과 정신을 망가뜨리는 마약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마약으로 인해 피골이 상접하고 신경질적인 중독자의 이미지는 바로 이 메스암페타민 중독자의 모습에서 유래된 것이다. 메스암페타민 상습 복용자는 사리 분별이 흐려지고 충동적이고 과격한 행동이 나타나며 마약 복용을 중단했을 시에는 심한 우울감에 시달린다. 북한 내에서는 이 마약을 주로 중국에서 부르는 이름인 ‘빙두’ 또는 ‘얼음’으로 부른다.



필로폰, 빙두 등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은 흰색 결정 또는 가루 형태로 유통되며 링거용 식염수에 녹여서 정맥 주사로 투여하거나 흡입기를 통해 연기를 흡입하는 식으로 사용된다.

마약 문제의 심각성

북한의 마약 사용 및 전파 실태를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추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여러 정황상 단순히 특정 부류의 사람과 지역에 국한되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정보센터와 양옥경 교수가 탈북자 1,4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탈북민 중 90년대 이전에 탈북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4.7%에 불과했던 마약 접촉자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15년 이후 탈북자들에서는 3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⁷. 북한 내 마약 사용 비율에 대한 응답도 탈북 연도가 최근일수록 증가했다. 90년대 탈북자는 59.3%가

5 Andrei Lankov and Seok-hyang Kim (2013). "A New Face of North Korean Drug Use: Upsurge in Methamphetamine Abuse Across the Northern Areas of North Korea", North Korean Review Volume 9, Number 1 (Spring 2013), pp. 45-60.

6 Andrei Lankov and Seok-hyang Kim (2013). p. 50

7 양옥경 (2016). "북한의 마약 사용 현황과 과제", 북한의 마약 사용 실태 현황과 과제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 마약문제 조사결과 발표 세미나 2016), pp. 55-78.

10% 미만이라고 응답했지만 2015년 탈북자 중에서는 16.7% 만이 10% 미만이라고 답변했다. 대신 30% 이상이라는 응답자는 큰폭으로 증가하였고 50%, 심지어 90%라고 대답한 탈북자들도 있었다. 마약 사용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심각하게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응답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90년대에는 64% 였으나 15년에는 25%대로 줄어드는 반면 매우 또는 약간 심각하다는 응답은 90년대 26.7% 에서 15년에는 59.2%로 증가했다. 주요 피해로는 신체적으로는 두통과 식욕부진, 불면 등을 언급했고 정신적으로는 심한 우울, 심한 불안, 환청, 환시, 환촉 등이 거론되었다. 마약으로 인한 사망 사례도 왕왕 발생했고, 이 역시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했다. 조사 대상자 중 마약으로 인한 사망자를 보거나 들었다는 응답이 90년대 4.1% 에서 2015년 34.6%로 높아졌다.

이렇게 마약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었던 이유는 마약, 특히 빙두가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없거나 희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안드레이 란코프와 김석향 교수의 연구에서 증언자들은 빙두를 건강에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했었다고 응답했다. 한 증언자는 빙두는 고통을 감소시키고 뇌졸중 등이 왔을 때 치료 효과가 있다고 여겨졌다고 응답했고, 또 다른 증언자는 빙두를 하면 사람이 진정되고 그 외 별다른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알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⁸. 양옥경 교수의 연구에서도 응답자들 중 빙두를 치료제로 인식하는 비율이 26.6%로 나타났다. 마약의 유해성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도 59.9% 가량 되었다. 그렇지만 동시에 최근 탈북한 탈북자일수록 빙두를 마약으로 인식하는 비율과 마약이 유해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메스암페타민은 활력을 증진시키고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극단적인 행복감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약이 아닌 의약품 또는 각정용으로만 생각하다가 마약 사용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중독으로 인한 부작용이 드러나게 되고 이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주민들에게 충분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가운데 마약은 일종의 의약품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사진은 2014년 5월 군인 치료 전문병원인 대성산종합병원을 방문한 김정은의 모습

8 Andrei Lankov and Seok-hyang Kim, 2013, p. 56

마약의 확산에 북한 당국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북한은 마약 근절을 위해 대대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기도 하고 주민교육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5월 제 7차 당대회 이후 각지역에 하달한 ‘군중정치사업제강’에서도 마약을 ‘사상의식과 계급의식을 마비시키는 독소’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불순분자의 강력범죄가 사회의 정치적 안전에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며 ‘인간쓰레기들을 선군의 총대로 무자비하게 쓸어버리겠다’며 공개총살까지 암시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경고하기도 했다⁹.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북한의 내부 문건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서 그간 탈북자들의 증언에 힘을 실어줄 뿐 아니라 북한 당국이 바라보는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 외에 내부자 정보를 바탕으로 한 최근 뉴스에서도 북한 당국이 마약 단속을 강화하고 마약 사범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⁰. 하지만 적절한 예방과 치료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미 퍼진 마약을 근절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통일한국과 마약

마약은 한 사람의 건강과 인성을 파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행위를 연쇄적으로 유발한다. 마약으로 인한 심신 불안과 인식 장애로 인해 비정상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마약을 구하기 위한 자금을 대기 위해 다른 범죄에 손을 대는 등의 2차 범죄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북한에서도 마약 중독으로 인해 다른 범죄에 빠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¹¹. 거기에 마약은 그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복용을 중단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 북한에서 유행하고 있는 병두, 즉 메스암페타민 역시 중독성이 매우 큰 마약이며 복용자의 폭력성을 증가시키고 정신적인 부작용을 동반하는 약물이다. 그렇기에 북한의 마약 문제는 개인의 건강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서 통일 이후에도 골치 아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마약 문제는 마약이 퍼지고 중독자가 나오기 전에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북한에서 마약을 접한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람들이 모두 중독자인 것은 아니다. 마약은 고가의 상품이기에 때문에 돈이 없는 일반 서민들은 마약을 상습적으로 복용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사용하더라도 의료적 효과를 기대하며 소량 복용한 수준이 과반수라고 보인다. 그렇지만 마약은 소량으로도 강력한 중독 효과를 발휘하는 만큼 마약 전파를 막기 위한 예방책 마련이 절실하다. 문제는 현 북한 상황에서 이러한 예방책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9 “체제 위협 느낄 정도” 北 마약 병폐 심각, 「한국일보」, 2016.10.13

10 “북, 국가보위성 중심 마약단속 강화”, 「자유아시아방송」, 2017.04.01, “北보위성, 마약 단속에 군견 동원…자수도 권고”, 「국민통일방송」, 2018.03.13

11 양옥경, 2016, p 73.

마약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강화하고 있으나 정작 제대로 된 예방 교육이나 마약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충분한 의료 지원 및 중독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 등은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 국가적 차부로도 볼 수 있는 문제이기에 외부에서 도움을 주기에다 쉽지 않다.

마약 중독, 특히 지금 유행하는 메스암페타민에 중독되었을 때 중독을 중단시키는 어떤 특별한 치료약은 없다.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에서는 메스암페타민 중독에 대한 특별한 약물적 치료법은 없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¹². 마약을 중단했을 시에 동반되는 심한 우울감에 대한 처방으로 항우울제 치료가 도움이 될 뿐이다. 물론 마약 중독은 여러가지 육체적인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의학적인 접근은 마약 치료의 기초가 되지만, 중독 치료를 위한 인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도움을 바탕으로 한 치료 공동체 참여 및 심리적인 치료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실제 약물 남용자 치료 과정에서는 의학적인 접근과 심리적인 접근, 그리고 사회적인 접근이 모두 동원된다. 이를 다방면 접근(A multi-Pronged Approach)이라고 하는데 혐오요법과 심리치료, 그리고 치료 공동체 모임과 같은 다각적인 집단접근을 활용한다.

현재 북한에서의 치료법은 어떠할까?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전문치료기관은 전무하고 대부분 교화소로 보내져서 구타와 강제노동에 처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개중 일부는 정신병원인 ‘49호 병원’에 감금하는 것으로 치료를 대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 평양의 특수계층을 위한 마약 관련 치료 병원이 존재한다는 말이 있으나 정확한 실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광범위하게 퍼지는 마약을 통제하고 주민 생활을 구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마약 중독 예방과 치료가 미진하다면 통일 이후에도 상당한 숫자의 마약 중독자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치료하고 구제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게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남한 내의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통일 이후를 대비한 대책 마련을 기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복음의 힘: 마약 치료와 선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내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마약 문제는 당국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인 데다가 외부에서 개입할 여지도 제한적이다. 그렇지만 남북관계가 더 개선된다면 지금까지 북한의 결핵 예방과 치료를 위해 NGO들이 활동해온 것처럼 북한의 보건

12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http://www.drugfree.or.kr/information/index.html?contentsNum=3&category=DRUG_3&headNum=1&seq=2255&tpage=1) (검색일 2018.03.16)

13 양옥경, 2016. pp 70-74.

환경 개선 차원에서 북한의 마약 문제를 좀 더 직접적으로 다루고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 먼저 상당한 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마약 중독자들을 치료, 재활시키고 사회적으로 마약에 노출되었던 사람들이 상습 복용이나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각종 의료적인 지원과 함께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공동체적 중독치료 프로그램과 재활 프로그램, 심리 치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또 마약 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 자료와 캠페인, 그리고 질병 치료 및 통증 완화를 위해 소비되던 마약 사용을 막기 위한 충분한 의료 지원도 필요하다.


마약 문제는 단순히 의료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현재의 삶에 대한 불안감이나 불만, 공허감은 마약 중독을 더욱 부채질한다. 특히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는데는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끊어야겠다는 의지가 없거나 미약하다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지만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미래를 희망 없고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차라리 지금 당장 마약을 즐기고 잠깐이나마 고통과 고민을 잊고 살겠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기 쉽고 마약 중독 치료는 더욱 어려워진다. 즉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긍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마약 문제는 단순한 의료적 문제가 아닌,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긍정하며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심리적이면서 더 나아가 영적인 문제이다. 그렇지만 현재 북한에서 개인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긍정하기란 쉽지 않다. 북한을 지탱하던 종교적인 주체사상과 수령 절대주의가 고난의 행군이라는 참혹한 경험 이후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북한의 마약문제는 공허함과 불안감 속에 괴로워하는 영혼들의 외침을 반영하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마약 중독 치료를 위해서는 의료적 지원 뿐만 아니라 내밀한 영적 돌봄과 치료가 절실하다. 마약이 퍼지고 있는 북한의 영혼들에게도 영적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북한의 광범위한 마약 전파를 단순한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치부할 수 없다. 더 나아가 문제 뒤에 숨겨진 영혼들의 영적인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교회는 바로 그 영혼의 필요를 채우는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공동체이다. 교회 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북녘의 영혼들을 소홀하게 여겼던 태도를 반성하고, 어떻게 하면 그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생명되시고 의미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통일을 바라는 성도들도 북녘의 영혼들이 마약이라는 어둠의 속박을 깨뜨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벗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 복음 전도와 함께 영육간의 회복을 위한 공동체적인 접근도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또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비록 직접적인 접근과 복음 전파는 불가능하겠지만 성경적인 관점에 입각한 약물 중독자 치료와 관련심리 상담 프로그램이나 재활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중독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본래 주신 형상을 조금씩 회복해감을 통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마약 문제는 이념 문제도 아니고 말초적인 가쉽 거리도 아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이면서 동시에 영혼들의 영적인 갈망과 연결된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교회가 북녘의 영혼들이 가진 영적인 갈망을 이해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섬기게 된다면, 또 섬기도록 준비해 간다면 진정한 북한 마약 문제 해결과 함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마약 실태

임순희 (북한인권정보센터 선임연구위원)

서론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에 따르면 마약류는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 (의존성),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내성),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건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며(금단증상),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되어 있다.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닌 마약투약으로 인한 사회전반의 안녕에 위해를 가한다 것이 마약투약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가능케하는 이유인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연간 1만명이 넘는 마약사범이 검거되고 있으며, 신종마약의 증가와 인터넷을 통한 밀반입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마약거래는 관련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증가시켰으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욱 손쉽게 마약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우리도 마약에서 안전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북한산 필로폰 유입경로(추정)-출처 서울중앙지검

이와 더불어 중국의 경우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사형 등과 같은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과 중국 국적 동포가 연계된 조직을 통해 북한산 필로폰이 중국 내륙과 내륙을 통해 다시 국내로 유입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밝힌 북한 마약 통로는 요녕성 단둥 국경 및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국경 길림성 삼합 타운지역과 장백현 장백마을 등이 있으며 동북지역이 마약 국제 밀매의 환송점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중국은 9-10명의 마약 밀매단 가운데 3명은 북한 국경에 마약을 운반하고, 3명의 조선족 중국인은 동북3성에서 운송을 맡으며, 3명의 일본인과 한국인에게 건네주는 이른바 “3-3-3”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¹

북한 마약 실태

북한의 마약은 외화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손쉽고 빠른 방법이었으며, 정권차원에서의 재배, 생산, 분배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² 특히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식량부족과 경제난으로 ‘고난의 행군’ 시기를 보내면서 마약 사용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북한 내 식량 부족으로 인한 대규모 아사와 경제시스템의 붕괴는 의료품 부족 등과 맞물려 일반 주민의 마약 소비를 더욱 부추겼다. 해외나 주변국에서의 마약유통에 대한 압박과 단속이 심해지면서 해외로 나오지 못하는 마약이 북한 내부로 퍼져나갔고, 점차 지방에까지 확산되어 주민들의 신체적,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마약 사용실태와 그 폐해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일부 보도되었을 뿐 체계적인 실태조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www.nkdb.org)의 북한마약류감시기구는 북한 마약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해결을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첫 작업으로 북한 마약에 대한 생산과 유통, 그리고 사용(소비) 실태 조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발표³하였으며, 본고에서는 이후 2017년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114명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최근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사 대상자 인적 배경

본 조사는 2017년 10월~12월 동안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로, 최근 1년 이내에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114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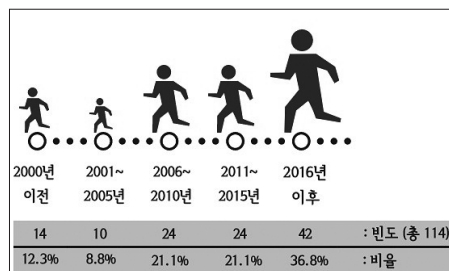
1 <https://wenku.baidu.com/view/9a16cdccad02de80d4d840fd.html?re=view>, 2015년 10월 16일자

2 조성권, ‘북한마약밀매의 실태와 대응방안’, 『정책연구』 통권 131호, 1999.

3 2016년 북한인권정보센터 주최 ‘북한 주민의 마약사용 실태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응답자 성별은 여성 80.7%(92명), 남성 19.3%(22명)로 대부분이 여성임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거주지는 양강도 50.0%, 함경북도 30.7%, 함경남도 7.9%로 나타났고, 그 외 지역은 5% 미만값을 보였다.

응답자들이 북한을 마지막으로 탈출한 시기는 2016년 이후가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06년~2010년'과 '2011년~2015년' 21.1%로 2011년 이후 북한을 탈출한 이들의 비율이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다.



조사대상 탈북자 114명의 최종 탈북 시기

2) 마약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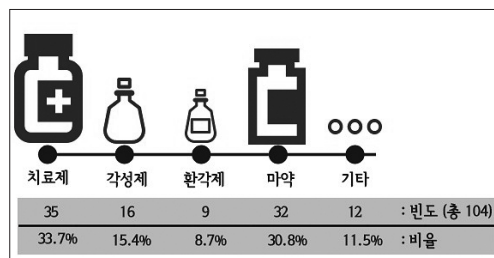
북한에서 마약이 사용되는 것을 알았는지에 대해 유효응답자의 55.9%는 그렇다, 44.1% 아니라고 응답했다. 또 마약이 건강에 나쁘다는 것을 안다 78.9%,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가 있다는 응답이 44.2%, 37.8%로 나타나 상당수의 북한주민은 마약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를 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마약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을 보거나 들은적 있다는 비율은 29.3%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주로 사용하는 마약의 종류는 대마, 생아편, 염산에페드린을 원료로 합성한 메스암페타민으로 알려져있다. 메스암페타민을 북한에서는 ‘빙두’, ‘얼음’으로 불리며 국내에서는 ‘필로폰’, ‘히로뽕’ 등으로 불린다. 메스암페타민은 상대적으로 제조가 쉬우며, 제조자의 기술이나 제조과정에 따라 그 순도가 차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빙두에도 뽕급이 있고 B급 C급이 있습니다. 좋은 것 나쁜 것이 있다는 애깁니다. 좋은 것은 이 앞쪽으로 내보냅니다. (뽕급은) 최곱니다. C급을 1년 6개월 정도 쓰면 벌써 머리가 멍하면서 노이로제 정신병 돈단 말입니다. 한단계 더 걸치지 않은 것입니다. 뽕급은 다 거친 상태란 말입니다.”⁴

4 2017 인터뷰, 한00

마약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치료제’ 33.7%, ‘마약’ 30.8%, ‘각성제’ 15.4%, ‘환각제’ 8.7%로 응답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20대~40대의 경우 치료제나 마약이라는 응답이 높았고, 50대 이상에서는 대부분 치료제라고 응답했다.



조사 대상 탈북자들의 마약에 대한 인식

“부친 3일장을 하면서 밤을 새야하니까 큰 형이 이것을 제의해서 처음 써보게 되었어요...(중략)... 2001년 그때는 이런 게 있다 말만 들었지, 약제인줄 알았어요, 약제”⁵

“여름이었는데 배탈이 난거예요. 이불 덮지 않고 자서, ‘야 이거 배아파 죽겠다’고, 병원가서 약 타다 먹어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친구가 ‘이거 딱 세 번만 해보라. 금방 낫는다’. ‘지랄하네. 그걸 해서 어떻게 낫냐?’. 해보라고 해서 진짜 세 번 했는데 딱 낫는거예요. ‘아 이진 뭐지? 진짜 약이네?’⁶

최종탈북연도를 기준으로 치료제라는 응답은 2001년~2010년 사이 낮아진 값을 보이다가 최근 다시 비율이 증가하는 값을 보이고 있다. 장마당으로 흘러나온 국제기구의 지원약품이나 의약품은 상대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때와 달리 대북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빙두’를 다시 사용하는 것이라면 의약품 부족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마약이 가져오는 구체적인 피해에 대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치료제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사용해서는 안되는 유해한 물질임을 알리고 교육하는 과정 역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5 2016 인터뷰, 신00

6 2016 인터뷰, 정00

3) 마약 단속과 처벌 실태

1990년대 북한의 마약밀매는 악화되는 경제위기 하에서 외화벌이 사업의 비공식적 수단으로 전면에 등장하였다. 북한의 양귀비 재배면적은 1992년 130만평에서 1993년 1,280만평으로 약 10배 가까이 증가되었다.⁷ 그러나 이러한 ‘정권지원 마약밀매’는 중국을 포함한 국외에서의 문제발생 등으로 인해 2003년 ‘마약관리법’을 제정하였으며, 두차례의 개정과정⁸을 거치며 북한주민의 마약사용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과 처벌 의지를 보이고 있다.

2012년 개정된 북한 형법은 전반적으로 처벌이 완화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인 법정형 완화 추세와 반대로, 마약밀수 및 밀매죄의 법정형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208조 마약밀수 밀매죄에서 특히 대량의 마약을 밀수, 밀매하고 그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형법 제206조에서는 비법아편재배·마약 제조죄에 대해 최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07조에서는 비법마약 사용죄의 경우 1년 이하 노동단련대형에서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 정권의 마약 단속에 대한 의지는 가장 강력한 처벌인 공개처형과 연결되어 있다. 마약과 관련한 사법적 집행은 최근 들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마약사건의 영향과 관련하여 『NKDB 통합인권DB』에 등록된 사법적 집행⁹ 사건은 전체 사법적 집행건 중 1990년대 0.8%(19건), 2000년대 9.3%(129건), 2010년 이후 20.3%(73건)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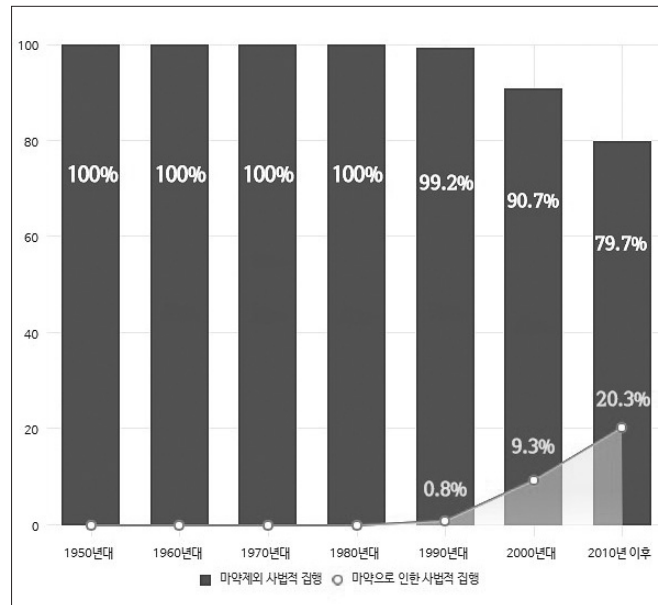
이는 2010년 이후 북한당국에서 강력하고 엄격한 처벌을 행하고 있으며, 그만큼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실제 단속 처벌 결과를 살펴보면 교화소 30.3%, 단련대 24.6%의 처벌을 받는 것보다 뇌물을 주고 나왔다는 비율이 31.1%로 더 높게 나타나 법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준다. 특히 2016년 센터가 발표한 자료와 비교해 보면 뇌물을 주고 나왔다는 비율이 23.1%에서 31.1%로 늘어난 반면, 교화소 구금 비율은 44.0%에서 30.3%로, 가장 가벼운 처벌로 볼 수 있는 단련대 처벌은 14.3%에서 24.6%로 증가되어 오히려 형량이 가벼워진 결과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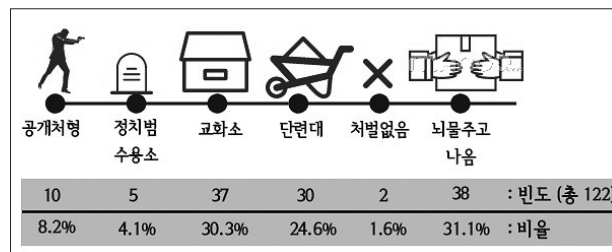
7 조성권(1998), 북한 마약밀매의 실태와 대응방안, 국가안전기획부 『정책연구』 통권 제131호, 281~292쪽.

8 북한에서 마약과 관련한 법률이 처음 제정된 것은 2003년이며, 두 차례(2005년, 2012년)의 개정과정을 거쳤다. 2012년 개정된 마약관리법(형법 제208조)에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5년 개정형법에 비법아편재배·마약제조죄(제266조) 가중처벌로 사형을 추가하였다.

9 사법적 집행이란 사법기관에서 개인의 생명에 대한 처형을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전체 사법 집행 대비 마약 사범 처벌 비율



조사 대상 탈북자들이 경험한 마약 관련 단속과 처벌

결국 법을 집행해야 하는 법일군들에게조차 마약은 높은 이윤을 보장할 수 있는 또다른 ‘돈벌이’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 마약이라던가 이런 걸 단속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마약생산이 너무 광범위해져가지고 어린이들까지도 중학교 고등학교가 따로 분리 되어있지 않아요. 중학교 애들도 생일이라 되게 되면 생일선물로 싸가지고 와요. 그 정도로 마약이 성행하거든요. 너무 광범위해지고 하니까 그 때 김정은이 데뷔하면서 북한에 김정은이 있다는 것을 조금 알릴 때 었거든요. 많은 (약을 거래한) 사람들만, 한 사람에 마약을 70kg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총살했어요.”¹⁰

10 2016 인터뷰, 김00

“빙두를 하는데, 마약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돈만 보면 사상이 없고, 그런 사람이 직급에 있습니다. 그것도 처벌 안합니다. 처남이 도당에 있다는 이유로 행세하면서...”¹¹

결론

북한에서의 마약문제는 단순한 사회범죄 혹은 국가범죄 수준에서 이야기 될 것이 아니라 더 낮은 수준에서의 시작점을 찾아야 한다. 식량난과 의료부족, 공공교육의 붕괴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을 통해 쉽게 일반주민의 삶에 파고들고 있으며, 그것이 종래에 가져올 위험성을 알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의 의지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국지적인 문제도 아니다.

북한 마약은 동북아시아는 물론이고 아시아와 유럽 등지로 유통될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 국내로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전 지역, 전 연령으로 확산된 마약문제는 통일 전후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물론이고 통일사회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북한 마약문제는 북한과 유엔 및 국제기구, 그리고 한국정부의 협력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해결 대책을 개발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 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첫 책임주체는 북한 당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심각성을 인지하려고 하지도 않고 있다. 따라서 치료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예방을 위한 조치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 당국은 마약의 위해성에 대한 정보를 일반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간헐적인 단속과 통제가 아닌 치료와 예방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 마약전문기구나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수감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51명이던 수감자가 2016년 8월에는 129명으로 해마다 20%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의 범죄유형은 마약사범(38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폭력(15명), 사기횡령(13명), 살인(11명), 절도(5명), 강도(4명) 등의 순이다.¹²

11 2017 인터뷰, 한00

12 영남일보. “심한 생활고에 차별까지 시달려” ... 겔도는 탈북자 남한 정착 지원 (2018년 3월 15일검색).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61004.010050735170001>.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통일과정에서 마약 문제가 초래할 사회적 비용은 만만치 않을 것이며, 따라서 해당 문제해결을 위해 먼저 북한 마약사용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지속적이고 밀도 있는 조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사범은 보호예외조항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북한에서 마약거래나 사용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사실을 숨기게 되고, 이를 개인의 책임으로 떠안게 된다. 북한의 사회경제적 시스템이 붕괴된 것만으로 모든 범죄발생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는 없겠지만 해당 문제를 너무 단순화시켜 마약사용을 북한주민 혹은 북한이탈주민 잘못으로만 규정지어서도 안된다. 오히려 국내 입국 초기에 마약경험자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함께 이들의 범죄 예방관련 교육 강화 및 한국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들이 전문적인 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마약사용 억제와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역시 중요한 시점이다. 부분적으로는 의약품 부족으로 인한 마약사용 부분 해결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의약품을 지원함으로써 북한주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것 역시 우리들의 몫일 것이다. 🕯





‘엄마, 나 한 코만’

●
편집부

북한 마약 실태는 사실 연구하기 쉬운 주제는 아니다. 마약이라는 소재 자체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꺼리는 주제이기도 하고, 은밀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의 아픔을 생각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작업에 나서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기독교 대표 방송인 극동방송에서는 지난해 9월 25일, 북한 마약실태를 다룬 라디오 다큐멘터리 ‘엄마 나 한코만’을 방송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 다큐멘터리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한국 PD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이달의 PD상 라디오 부분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북한개발소식에서는 해당 라디오 다큐멘터리의 담당 PD인 강한빛 PD와의 인터뷰를 통해 취재를 통해 생생하게 확인된 북한 마약 실태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편 집 부 : 먼저 라디오 다큐멘터리 〈엄마, 나 한코만〉으로 한국 PD연합회에서 주관하는 211회 이달의 PD상 라디오 부분을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북한 마약 실태라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것이었나요?

강한빛PD: 네, 감사합니다. 제가 북한 마약 실태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북한인권 정보센터에서 발표했던 실태 보고서를 읽게 된 후였습니다. 제가 아는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연구 기관으로서 통계 수치를 보수적으로 잡는 성향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북한 주민의 30퍼센트 가량이 마약을 사용한다는 보고를 내놓은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보통의 일반인들이라면 놀랄 수 밖에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서에는 마약을 상비약으로 이용하기도 한다고 하고, 증언록 중에는 심지어 5살자리 꼬마가 두통에 시달리니까 엄마가 마약을 주고, 나중에는 아이가 아플 때마다 ‘엄마, 나 한코만’ 이라고 조르기도 한다고 증언한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약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고 북한의 주민들도 헌법상으로는 우리국민이고 통일되면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인데 이분들에 대한 건강권

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마약문제는 실태는 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 주제가 주제여서 그런지 생각보다 사람들이 모르고 지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미디어 매체가 이야기할 시점이 되었구나 생각하게 되어 취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편 집 부 : 말씀해 주신 대로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다큐멘터리를 취재하시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취재 간에 특별히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나요?

강한빛 PD : 먼저는 소재가 충격적이지만 이것을 자극적으로 가공해서 방송을 위해 상품화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 북한 관련 프로그램이나 보도 중에는 시청자를 끌어 모으기 위해 자극적 소재를 주로 다루면서 현실 실태에 대한 정확한 전달보다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평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와중에 마약이라는 소재를 다루려고 보니 그 자체가 워낙 충격적인 사안이라 다루는데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가능하면 실체를 구체적으로, 부풀려지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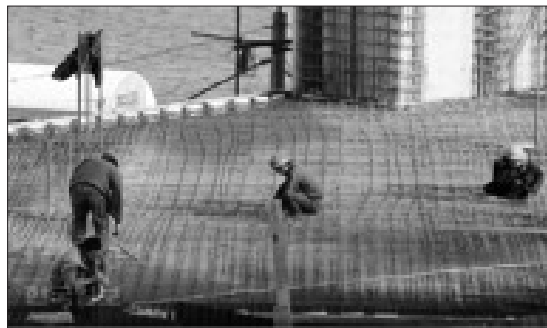
취재 자체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취재는 라디오라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 인터뷰도 쉽지 않았고 거절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거절하시던 분도 인간적 유대감 형성되니 속 깊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음성변조 하고 가명으로 방송되며 화면이 없는 라디오 방송이라고 하니깐 그제서야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 카메라를 가지고 인터뷰를 시도했으면 취재가 안되었을 것입니다. 저희 매체가 라디오라는 특성상 화면이 없기 때문에 카메라를 들이댄다면 인터뷰를 거절할 사람들에게서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환경 자체도 매우 열악했습니다. 저희는 탈북자 분들 외에도 최근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제 3국에 나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취재를 했습니다. 그분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무전여행 온 여행자인 것으로 해서 실제 공사장에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에서 오신지 얼마 안된 노동자 분들도 만나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주제에 대해서 인터뷰 식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 일을 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마약에 대해서도 한 꼭지 이야기하는 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 처음에는 마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리던 분도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스스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기도 하며 마약을 사용하는 실태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서 좀 더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 ■ 북한 마약 실태 심각. 청소년도 마약에 노출 ■ ■

편 집 부 :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직접 취재를 통해 들은 북한의 마약 실태는 어떠했나요? 30% 정도 사용한다는 기존 연구와 비교해서는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되시나요?

강한빛 PD: 네, 앞뒤 안 맞는 말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처음에는 마약 관련 내용을 숨기다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드러났던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야기 할 때는 빙두 같은것은 없다 하셨는데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함흥에 빙두 공장이 많다고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린 친구들은 안한다고 하다가도 나중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빙두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무심결에 하기도 하는 등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감추고 있던 내용들이 드러났었습니다.



제 3국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 (출처: 한국일보)

이렇게 취재를 해 보니 연구 기관에서 제시한 30퍼센트라는 수치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보편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숨겨져 있는 사례가 참 많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탈북민 중에 북에서 의과대학 나오신 의사로서 실제 마약 환자 치료 하던 분을 취재했는데요, 이분의 증언에 따르면 간부집 자식들이 마약 중독으로 치료받으러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마약 치료 경력이 흠이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서는 몸이 앓잖아서 치료받고 왔다는 식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약 중독자는 북한에서 소위 '49호'로 불리는 정신병원에 격리해서 치료한다고 합니다. 마약 중독과 치료에 대해 쉬쉬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사례도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편화는 되어 있지만 정확한 실태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지역차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중에는 특히 함흥 평성이 마약의 중심지로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편 집 부 : 실태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하니 마음이 아프네요. 연관해서 이번 다큐 제목이 ‘엄마 나한 코만’ 입니다. 제목에서부터 마약의 사용자가 일반 성인 외에 어린 아이나 청소년들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직접 취재를 통해 살펴본 북한 청소년들의 마약 사용 실태는 어떠했습니까?

강한빛 PD: 취재 과정에서 마약을 한 성인들 외에도 마약을 했던 청소년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북에서 마약을 했던, 소위 ‘따왕’이라고 불리는, 학교에서 주먹 좀 쓰는 남한의 ‘일진’ 같은 친구도 만났는데요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 청소년들 사이에도 마약은 상당히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학교에 가면 한 반에 꼭 몇 명은 뒷자리에서 폼 잡고 쉬는 시간에 몰래 담배피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도 각 반에 좀 노는 친구들 몇 명씩은 있는데 그 친구들이 보통 마약을 한다고 합니다. 또 돈 있는 아이들이 마약에 잘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일 때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소위 ‘공구’라고 불리는 고가의 마약 흡입기를 선물로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권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 먹었으니 빙두 한 코 같이 하자’ 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 사이에 마약이 나쁘다는 감각이나 의식 자체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약 하면 인생이 파헤해지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단순 기호품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은 어떤 사례에서는 선생님이 가정방문 하시는데 집에서 대접한다고 빙두 한 코 하시자고 부모가 선생님께 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2016년 해경이 중국 어선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과 흡입기

편 집 부 : 이야기만 들어서는 청소년들까지 이렇게 아무런 제한 없이 마약을 사용한다는 것이 믿기 힘든 충격적인 이야기네요.

강한빛PD: 저도 처음 들을때는 과장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빙두 파는 곳을 ‘소분집’, 또는 ‘두부집’이라고 하는데 한집 건너 한집이 팔 정도로 많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마치 비디오 방

이나 만화방 가듯 가는 것이죠. 특히 함흥은 얼음 왕국이라는 별명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노는 애들 담배같이 생각해서 마약을 하고, 어른들은 알판(밀수된 CD나 DVD) 볼 때 복용하기도 한다는 증언도 있었고, 또 운전수들 중에 빙두를 복용하면 잠이 안오기 때문에 먹고 운전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편 집 부 : 마약을 많이 한다는 것도 문제인데 사회적 인식도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고 하니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약은 보통 매우 고가의 물건일텐데 어떻게 마약이 북한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수 있었을까요? 북한은 마약이 저렴한가요? 직접 살펴보신 북한 마약의 유통과 전파 실태는 어떠했습니까?

강한빛 PD: 네, 북한에서도 마약은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오히려 마약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신 부유층이 과시용으로 하기도 했고, 보위부가 의도적으로 빙두를 뜯어내는 경우도 있었고, 마약을 하기 위한 계를 만들어서 서로 흡입기를 선물로 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마약을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마약하는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집이 잘 살았습니다. 장마당을 하면서 이문에 트인 사람들도 있었고 부모가 마약을 팔아서 부자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마약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명품 사는 것처럼 마약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이렇게 잘나가’, ‘나 이렇게 썸 사람이야’ 하는 과시적 목적이 마약 사용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 ■ 삶에 진정한 의미가 되어 주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 ■

편 집 부 : 그렇군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매우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마약을 위험하게 보는 이유가 마약의 해악이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통일 한국을 생각할 때 북한의 마약 이슈가 참 중요한 사안일 것 같습니다. 잠깐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통일을 고려한 의료적인 도움이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중독 치유 관련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통일의 관점에서 이번 다큐를 취재하면서 느끼신 점이나 의의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강한빛PD: 먼저 취재 중에 들었던 생각은 마약 복용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제가 들은 북한의 마약 치료 시설 실태는 정말 형편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냥 가두고, 묶어 놓고 하는 것이죠. 통일 이전이지만 지금부터 체계적인 치료가 제공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진벨 제단 등 NGO 들이 북한에서 결핵 환자 치료 하듯이 마약 치료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약은 북한 정부로서도 골치거리일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 되었을 때 큰 사회적 비용이기 때문에 미리 인도적 차

원에서 이런 의료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또 취재를 하면서 북한 마약 사용 실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 마약을 하는가 하는 이유를 보면 결국은 공허하고 사는 게 불안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북에서는 돈이 많은 뭐하든 하루 아침에 목이 날아갈 수 있다 보니 불안과 공포가 넓게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 불안을 잊어버리려고 마약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는 북한 사람에게 ‘마약은 건강에 해로우니 하지 말라’ 는 말은 잘 안 통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나는 즐기다 뒤져버릴란다. 건강은 개뿔’ 식의 반응을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들에게 미래의 건강 따위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어차피 희망이 없으니 일단 오늘 하루 즐기고 죽겠다는 의식이 팽배했습니다. 절망의 끝이 마약과도 이어져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 마약 문제는 단순한 보건 의료적인 부분을 넘어서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어두움이 마약으로 이어지고 또 그 마약이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저는 취재를 하면 할수록 공허한 그들의 삶에 진정한 의미가 되어 주실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더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편 집 부 :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들이 이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북한 선교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계획 또는 구상하고 계신 앞으로의 연구나 취재 분야는 어떻게 되시나요?

강한빛PD: 지금 관심있게 준비하는 것은 바로 민간 대북 라디오의 효과와 의의에 대해 분석하는 것입니다. ‘최종병기 라디오’ 라고 가제를 붙였는데요, 대북 방송의 힘이 마치 북한이 핵보검 운운하는 것만큼 강력하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민간 라디오 대북 방송들 대부분이 사정이 어렵습니다. 우리 나라도 아닌 미국에서 지원 받아서 겨우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방송의 효과에 대해서도 확인이 안되니 힘이 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디오가 얼마나 강력하고 성과를 내었는지,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취재해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북한에 송출되는 중파나 단파 방송은 우리는 안 듣는 소위 구닥다리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을 바꾸는 것은 바로 그 가장 구닥다리 방송인 중파 단파 방송이라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속한 극동방송은 라디오를 통해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파해왔습니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복음 아니면 바뀌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사나 인권에 대한 방송도 의미가 있지만 눈에 보이는 짝들은 잘라내는 수준을 넘어서 의식의 뿌리를 바꾸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야 말로 사람을 살리는 힘이라는 사실을 방송을 하면서 매

일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도 대북 라디오 복음 사역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취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편 집 부 :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특별히 하고싶으신 말이나 앞으로의 각오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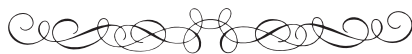
강한빛 PD: 분별을 위해서 기도해주시요. 대북 복음 방송 사역을 하면서 본이 아니게 청취자들과 북한 사역자 및 단체들을 잇는 다리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워낙 많은 단체가 있다 보니 저로서도 어떤 곳이 건강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위해 북한 선교 관련 단체들에 직접 전수 전화 연락을 시도했던 적이 있는데요, 북한 선교 등록 단체가 300개가 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는 제대로 전화가 안되고 간판만 있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 선교는 원체 은밀하게 해야 하긴 하지만 개중에 문제 있는 곳들이 있어서 순수하게 하는 분도 오해 받고 선교 현장도 성도들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명쾌하게 밝힐 방법은 없으나 통일이 되면 분명히 드러나게 되겠죠. 아마 소리 없이 열심히 사역해서 나중에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엄청 유명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저를 통해서 북한 선교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연락은 많이 오는데 책임 못질 일을 할 수 없어서 연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진짜 필요한 곳에 도움을 가도록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분별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편 집 부 :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하시는 라디오 사역과 앞으로의 취재를 통해 바라시는 대로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한빛PD: 네, 감사합니다.

북한의 마약 실태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그러한 지 확인하고자 취재를 시작했던 강 PD는 취재를 통해 마약의 실태는 물론이고 복음이 그 땅에 필요한 이유와 라디오 방송의 의의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실태뿐만 아니라 북한과 복음을 대하는 개인의 자세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었다.

클에서 소개한 라디오 다큐멘터리 '엄마 나 한 코만'은 현재는 극동방송에서 다시 듣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들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곧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다시 듣기 서비스를 활성화한다고 한다. 아무쪼록 그 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던, 또는 자극적인 뉴스로만 들었던 북한의 마약 실태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를 위해 준비되어 실질적인 통일 준비와 복음을 통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의 출애굽기 (2)

드보라

집과 학교의 이중생활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항상 집에서는 말썽꾸러기, 천덕꾸러기였지만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상당히 성실한 학생이었다. 그 당시 학교에서는 외국어로 2개반을 운영했다. 러시아어반과 영어반이었는데 나는 영어반을 선택했었다. 그 당시에는 영어가 우리가 그토록 증오하는 미제가 사용하는 언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그저 영국에서 쓰는 언어라고만 알고 있었다. 배웠던 영어 발음도 영국식이었다.

내가 다니던 중학교는 6학년 졸업이 2년 남은 4학년때부터 시험을 보고 경연을 해서 뛰어난 학생들을 추렸다. 그리고는 그 학생들을 따로 모아서 공부를 시켰다. 북한의 학교가 여기서 말하는 비평준화 같은 것은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학교 체면이 중요하다 보니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려고 했다. 내가 있던 학교는 한 학년에 약 2-300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1반 정도를 수재반으로 따로 구분을 시켰다. 나는 평소 좋은 학업 성적 덕분에 그 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집에서는 내가 공부하고 또 대학가는 것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으셨다. 아버지의 머리속에 여자 대학생들은 ‘집안 살림은 안하고 입만 여물어서 남자를 깔보는’ 그런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러시아에서 돌아오신 뒤에 배치 받은 직장은 외부 출장이 잦았는데, 출장 다니시면서 여자 대학생들을 이리저리 지나칠 기회들이 많으셨다고 한다. 그렇게 요즘도 그렇지만 그 당시 아버지 세대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심했다. 아버지는 그래서 공부에 대해 부정적이셨고 집에서 생활 살림이나 잘하라고 하셨다. 집에서 공부를 못하게 해서 나는 숙제도 학교에서 다 해야 귀가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태도는 모순적인 면이 있었다. 그렇게 여자가 공부하는 것을 반대하시면서도 언니는 대학을 보내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언니는 공부를 그리 잘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언니에게 경제나 회계 관련 공부를 하면 좋겠다 생각하셨다. 그래서 언니를 경제 관련 대학에 보내기 위해 억지로 학교 교장 선생님 등하고 뒷문으로 사업을 해서 뇌물도 건네 주었다. 당시 러시아 빵이

귀했는데 그 빵을 선물로 주기도 했다. 그렇게 겨우 대학입학권을 하나 따내고 언니는 대학 입학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그러나 공부가 부족한 가운데 무리해서 시험을 봤던 언니는 결국 시험을 망치고 말았고 입학도 하지 못했다. 이 일을 겪고 나자 아버지는 분이 나서서 ‘애잇, 여자는 공부시키는 게 아니야’ 하고는 나를 공부시키려고 하지 않으셨다.

결국 내가 대학 갈 때가 되자 집에서 논란이 있었다. 부모들은 항상 나를 제외하고 남동생과 언니 위주로 챙긴다는 생각에 나는 더 반항적으로 행동했고, 부모님은 나를 대학 보낼 생각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갈등은 더 깊어졌다. 그래도 대학은 꼭 가고 싶었다. 어릴 적부터 유치원 교사가 꿈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대학 지망을 쓸 때도 1-3순위 모두 교원대학을 썼다. 사실 점수를 생각하면 1순위에는 더 좋은 학교를 써야 했다. 보통 평양이나 수도권 대학은 1순위, 지방 주요 도시의 저명한 대학은 2순위였고 내가 가려고 했던 지방 교원 대학은 3순위 정도였다. 그러니 선생님께셔도 1-3순위를 왜 다 같은 곳을 썼냐며 의아해 하셨다. 그렇지만 나는 이상하게 어린이 교사가 하고 싶었다.



북한 황해북도 름산군의 한 유치원의 아이들 (출처: WFP)

그렇게 학교를 지원하고 교원 대학 시험을 보았다. 약 1주일동안 면접을 포함해서 시험을 보았다. 이때 또다시 나는 부모님께 섭섭함을 느꼈다. 언니 때는 아버지께서 손수 여관방을 잡아서 1주일동안 함께 지내며 언니를 챙겨주시더니 내가 시험 볼 때는 출장가신다고 그냥 버려두셨기 때문이다. 출장 때문에 못오신것이긴 했지만 아니었어도 오시지 않으셨을 것이 확실했다. 특히 대학 면접에는 부모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나는 혼자 면접관 앞에 못오신 부모님 사정을 거짓말로 만들어서 설명하기 급급했다. 화가 났다.

그렇게 시험을 보고 왔더니 아버지는 출장갔다가 돌아오셔서 교원 대학 시험을 봤다고 나에게서 화를 내셨다. 여자 대학생들이 다 그렇지만 그 중에 선생이 제일 입이 여물고 고집스럽다고 하시면서 나를 나무라시고는 평소 입버릇처럼 “대학을 졸업해도 팔자 안 풀린다. 시집을 잘 가야 된다.” 고

말씀하셨다. 나중에 들어보니 아버지께서는 출장을 다니시면서 해안 지역에 처자들이 염전에서 소금 밀차를 끌면서 고생하시는 것을 보셨는데 그 여자들이 다 대학 졸업한 여자였다고 한다. 그런 광경을 보고 아버지는 ‘여자가 공부보다 결혼을 잘해야 하는데, 괜히 많이 배워서 입이 모질면 좋은 혼사자리를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셨던 것 같다. 북한에서는 여자가 대학을 졸업했어도 결혼하면 직장이 배치되지 않고 가정을 돌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결혼을 잘해야 한다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대학 시험을 보고 온 딸 앞에 그런 말 밖에 할 수 없는 것인가? 결혼은 나중에 잘하면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내 머리속을 떠나지 않았다.

어쨌든 나는 대학 합격했다. 교원 대학에서도 소학교 교사가 아닌 유치원 교사 공부를 했다. 학업기간 2년에 훈련 6개월 해서 총 2년 6개월의 대학생활이었다. 북한은 대학 등록금은 없었다. 대신 학교 기숙사 밥이 형편 없어서 늘 배고팠다. 나는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같이 지내는 친구들 중 농사짓는 시골이 고향인 친구들은 주말에 집에 갔다오면 군것질거리로 옥수수나 콩 볶은 것을 한 움큼씩 가져오곤 했다. 그러면 그것을 숙소에서 나눠먹었다. 그렇지만 나는 그 무리에 끼지 못했다. 집에서 챙겨주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집에 갔다 올때마다 나는 그 조그마한 간식거리를 가져가지 못해서 그냥 울면서 왔다. 염치가 없어서 애들이 간식 나눠먹을 때 공부만 했다. 그러다보니 친구도 많이 못만들었다. 이렇게 1년을 지내니 나중에는 그래도 자식이라고 어머니께서 조금씩 간식과 용돈을 챙겨주셨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내가 대학 공부 하는 것을 싫어하셨다.

대학 생활 중에 가장 중요했던 일이라고 한다면 남편을 만난 것이었다. 그 당시 우리집은 꽤 살림살이가 괜찮았다. 집에서 술도 만들어 이웃에게 팔기도 했다. 옆집 아줌마는 우리 집에 술 받으러 자주 오셨었는데 오실 때마다 나에게 자기 시동생을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셨다. 그렇지만 나는 그리 귀담아듣지 않고 웃어넘기곤 했다.

그런데 하루는 아주머니가 억지로 심부름거리를 만들어서 나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셨다. 가보니 이웃집의 가족분들이 모여있는데 그중 눈에 띄는 청년이 한명 있었다. 까까머리의 흰칠한 청년이었다. 아주머니는 그 청년과 가족들에게 나를 소개하셨다. 심부름을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그 청년이 문을 열고 나와서는 씩씩하게 인사를 했다. 아주 우렁찬 목소리였다. 알고보니 아직 군 복무 중인데 휴가를 나왔다고 했다. 그 당시 연예와 결혼 문화 풍토에서 자유 연애는 매우 생소한 것이었고 이렇게 이성을 직접 소개받는 일은 처음이었기에 나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 어색했지만 씩씩한 청년의 모습이 싫지마는 않았다. 나중에 첫 만남 때 어땠냐고 물어봤더니 첫 인상이 매우 여자답다 생각했다고 한다. 그 청년은 아직 군 복무가 남았기에 부대로 복귀를 했지만, 곧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생전 처음 이성으로부터 편지를 받는 기분은 참 묘했다. 청년은 자기가 몇 년만 지나면 재대니까 꼭 기다려달라 했다. 그 당시 갓 20대가 된 내 가슴은 팬스레 쿵닥쿵닥 거렸다.

그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와중에 시간은 흐르고 나는 대학을 졸업하였다. 졸업하고 유치원에 배치를 받아야 하는데 하필 빈 자리가 없어서 동네 농장 유치원으로 배치를 받았다. 그렇게 시골 농장 유치원에서 교사로 있는데 갑자기 남자한테 연락이 왔다. 예정보다 빨리 제대가 됐다고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나를 소개시켜줬던 그 남자의 형수가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다른 집에서 머느리 감으로 눈독 드릴 텐데 돈을 쓰더라도 빨리 제대를 하라 해서 우여곡절 끝에 제대를 한 것이다.

그 당시 결혼은 남녀간의 일대일의 연애사라기 보다는 가족과 부모사이의 일이었다. 아버지는 우리의 연애 사실을 모르고 계시다가 나중에 아셨다. 평소에 그 남자를 씩씩하고 바른 청년이라고 좋아하는 하셨지만 공교롭게도 그 집은 대대로 남자들이 술을 너무 좋아하는 집이었다. 당장 그 남자의 형도 거의 알코올 중독 수준이었다. 그러다보니 아버지는 옆집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셨고, 그 청년도 사위로는 생각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 말씀 드리기도 전에 아버지는 우리가 연애하는 것을 알게 되셨다. 주고받았던 편지가 들킨 것이다.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셨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집 사람들에게 대한 믿음이 없으셨던 것도 있지만 언니보다 내가 먼저 결혼하려고 하는 것을 아버지는 매우 못마땅해 하셨다. 그 당시 언니는 대학을 못간 대신 5과 대상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뽑혀갔다. 5과는 소위 말하는 얼굴이 반반한 여자들을 국가에서 뽑아서 위문이나 서비스 업에 배치하는 것이다. 외국 사람 접대나 군대 위문 공연 같은 일을 하고 소위 말하는 기쁨조도 5과에서 선발된다. 언니는 5과 선발 자원으로 선택이 되어서 농촌 동원도 안당하고 특별 관리 받았다. 그 당시 우리는 5과가 어떤 곳인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국가에서 특별하게 선발된 언니를 부러워했다. 언니는 그렇게 평양으로 불려가서는 한동안 소식이 없었다가 나중에 지방에 어느 군부대 인근으로 발령받았다고 알려왔다. 군부대 위문 공연을 다녔다고 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와중에 무슨 봉변이라도 당하지 않았을지 걱정이 된다. 그나마 지방으로 배치된 것이 다행한 일인지도 모른다. 여튼 언니가 5과에서 제대 되기 전에 동생이 먼저 결혼하게 생겼으니 아버지의 평소 가치관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런 상황인데도 그 청년이 옆집에 살다 보니 아버지는 청년 얼굴을 안볼래야 안볼수가 없으셨다. 그리고 만날때마다 씩씩하고 우렁차게 인사를 하는 그이에게 아버지는 이전같으면 하지 못할 욕을 막 하시기 시작했다. 그래도 곳곳이 웃으며 인사하던 그이도 참 굳센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결국 그이는 결혼을 하기 위해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헤어지라는 우리 아버지의 말에 그이는 헤어지느니 차라리 양젖물을 먹고 죽겠다 하며 아버지 보는 앞에서 난리를 쳤다. 평소에 씩씩하고 바른 모습만 보였던 청년이 저렇게 고집을 부리니 아버지는 처음에는 너무 황당해 하셨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했던가...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던 상황은 결국 아버지의 허락으로 마무리되었다. 죽더라도 결혼해야겠다던 그이의 고집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다. 결국은 나는 언니보다 먼저 결혼을 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지만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졸업 후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자 어려서 결혼했다고 풍기문란이라고 공개 비판 받았다. 그 당시 우리 지역 문화에는 여자는 적어도 23살 남자는 27살은 돼야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암묵적인 기준이 있었다. 게다가 결혼을 하면 보통 직장에 배치되지 않고 일을 하지 않는데 국가의 배려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1년밖에 일을 하지 않은 꼴이 되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나를 나쁘게 보는 시선도 있었고 공개 비판도 받았다. 많은 사람 앞에 그런 비판을 받는다는 것은 참 망신스러운 일이다.

그렇지만 솔직히 이런 것은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다. 진짜 문제는 먹고 사는 일이었다. 바로 고난의 행군으로 알려진 기근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남편이 직장 배치 받으면서 동네의 다른 집에 배치 받았다. 신혼 집이었지만 집에는 항상 먹을 것이 부족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부리나케 부모님 댁에 가는 것이 일이었다. 처음에는 어머니께서도 내가 오면 반갑게 맞아주시고 뭐라도 조금씩 챙겨주시곤 했다. 그런데 내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찾아오니 이제는 찬밥신세가 되었다. 그렇지만 당장 집에 먹을 것이 충분치 않으니 나는 눈치밥을 먹어가면서도 뭐라도 들고갈 것이 없을까 친정집 집안을 살피기 일쑤였다. 그 당시 내가 살던 고장에는 냉장고는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대부분 집 옆에 김치 움을 만들어서 냉장고처럼 쓰곤 했다. 나는 집에 가서 어머니 눈치를 보다가 집 밖에 김치 움에 스윽 들어가서 음식을 뒤지고 뭐라도 조금씩 가져왔다. 김치도 펴오고 아버지 주려고 어머니께서 따로 챙겨놓으신 음식도 들고 오는 일도 있었다. 커서도 미운 오리 새끼였다.



한국인의 밥상에 소개된 태백 지역 김치 움

그렇던 중 남편은 다시 직장을 옮기게 되었다. 전에 있던 시골 농장에서 움 정도 되는 동네로 이사를 갔다. 집에서는 더 멀어져서 거의 80리 거리가 되었다. 어머니는 이사 잘 갔다고 하시면서도 내심 안타까워하셨다. 그래도 친정 집에서 가져가는 것이 낫지 배고픔에 남에 것에 손이라도 댈까 걱정하셨다. 나는 그렇게 거리가 멀어졌어도 친정까지 7-8시간 걷는 것을 감수하고 종종 찾아갔다. 물론 오는 길에는 뭐라도 꼭 챙겨서 들고 왔다.

우리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딸을 출산했다. 축복된 일이고 배고픔만 감안한다면 행복한 가정생활이었지만 도대체 먹는 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제대로 생활을 이어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의 다른 형제들도 살 궁리를 하다가 기후가 조금 더 따뜻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으로 수속을 해서 이동을하기로 했다. 땅이라도 개간하면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다. 우리도 안되겠다 싶어서 함께 수속을 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 그렇지만 그 곳에 우리 땅은 없었다. 농사를 지을 땅은 이제부터 산 비탈을 일궈야 된다. 지금도 국경에서 볼 수 있는 북녘의 민둥산과 같이 우리도 산 능선을 개간하기 시작했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 농사일이 이렇게나 어렵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우리 친정 부모님도 생활이 어려워지자 생계 고민이 컸다. 그 때 언니네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언니는 5과 제대 후에 자기가 일하던 군부대 쪽 군인 간부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 군인 형부는 결혼 후 곧 제대하고는 친구들 통해서 무역회사에서 일하면서 군부대와 연계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와중에도 먹고 사는데 무리가 없었다. 언니는 아버지,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것이 못내 안쓰럽고 신경이 쓰였는지 부모님께 자기 집에 와서 같이 살자고 했고, 고민 끝에 아버지 어머니는 언니네 가서 살게 되었다.



북한의 서비차를 이용하는 북한 주민들 (출처: 뉴포커스)

농사를 짓다가 너무 힘들었던 나는 언니네를 종종 찾아갔다. 언니네는 100리길이 넘는 먼 거리였지만 거기에는 옥수수도 많고 해서 뭐라도 한 짐 가지고 올 수 있었다. 언니네를 한번 방문하는데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걸어서는 도저히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닌 데다가 통행증이 나올리가 만무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안가겠는가? 그 당시 통행증 없이 다른 지역에 가는 것을 우리는 뽕뽕기 한다고 했는데 나도 서비차를 타고 뽕뽕기를 했다. 그때 이용했던 서비차는 1톤

트럭 같은 차에 짐을 가득 싣고 그 위에 사람이 타고 가는 식이었다. 제대로 된 의자나 난간도 없이 산길을 가는 차에 몸을 맡기고 떨어지지 않게 부들부들 떨면서 가다가 초소가 보이면 차에서 내려서 초소 바깥 방향으로 멀리 돌아서 다시 차를 타는 식으로 길을 가는 것이다. 그렇게 가다가 차가 사고라도 하면 위에 탄 사람은 크게 다치거나 죽기도 했다. 나도 사고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기도 했다. 왔다갔다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보니 나중에는 언니한테 우리도 데려가라고 때를 쓰기도 했다. 언니는 처음에는 나를 보며 아니꼬와 하더니 어머니가 맘 아파하시는 것을 보고는 할 수 없이 허락을 했다. 그런데 우리 쪽이 문제였다. 처음에 수속을 해서 올 때는 쉬웠는데, 협동 농장에 배속되고 나니 나오기가 어려웠다. 결국 우리는 언니네로 가지 못했다. 신랑은 배속된 농장에서 일하면서 틈틈히 장사를 했고, 나는 언니네 왔다갔다 하면서 뭐라도 얻으려고 애썼다.

그렇게 생존을 위해 고생하면서도 나는 나라 밖으로 가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다. 강 건너에는 괴물들이 사는 것처럼 생각했고 눈이라도 뽑히는 줄 알았다. 그저 배운 대로 지금 내가 있는 이 나라가 최고이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나라가 바로 내 나라라고 생각했다. 당시 어른들이 종종 모여서 ‘지금이 왜정때보다 더 힘들다....’ 이런 말을 조용히 하곤 하셨는데, 솔직히 어른들 말이 이해가 안됐다. 우리는 일제시대야 말로 민족적으로 크게 고통받던 시기였다고 들었고, 그 일제를 위대하신 수령님께서 몰아내고 지금과 같은 좋은 나라를 만드셨다고 배웠는데 어떻게 어른들은 지금이 일제시대때보다 어떻게 더 힘들다 하는가? 하고 생각했다. 어른들의 말씀이 믿기지가 않았다. 그동안 배운 것들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임을,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이 신이 되어 거짓된 유토피아를 선전하는 그 땅에 살고있다는 현실을 깨닫기에 나는 너무 순진하고 아는 것이 없었다.

이렇게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면서도 순진하게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만족하기를 반복하던 어느 해의 단오 날이었다.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날... 지금까지 고생과는 또 다른 어려움이 내 삶에 닥쳤고 시작했고 나의 인생의 방향은 극적으로 변화했다. (계속)

1

대북특사단, 방북결과 언론발표… “4월말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



대북특별사절단 수석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월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대북 특별사절 대표단 수석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3월 6일 4월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평양에서 돌아온 직후 춘추관에서 전날부터 이날까지 1박2일간의 방북결과 브리핑을 갖고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해 6개항의 남북 합의사항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남북은 3차 정상회담을 판문점 남측구역인 평화의집에서 개최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구체적 실무협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했다.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이 아닌 곳에서, 남측 구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남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핫라인(Hot Line)을 설치하기로 했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 실장은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전했다. 또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실장은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며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정 실장은 “끝으로 북측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아울러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연기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오는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행한다고 했다”며 “문 대통령계선 방북결과 합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앞으로 남북 합의내용을 차질없이 이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참고: 뉴스1, 3월 6일)

2 북미 정상회담 성사, 5월 개최 논의



청와대 정외청 국가안보실장이 3월 8일 오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방북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5월 북미정상회담이 추진되기 시작해 전격적인 국면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5월까지 만나자고 수락한 것으로 발표됐다

북한을 방문하고 곧 이어서 미국을 방문한 정외청 실장은 9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능한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전달하며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바로 “좋다, 만나겠다”며 김 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 제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과 매티스 국방장관 등 배석자들을 둘러보며 “거봐라, 얘기를 한 게 잘한 거다”라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 실장에게 “온 김에 한국의 대표들이 오늘 내용을 한국 대표의 이름으로 백악관에서 직접 발표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해서 정 실장은 미국 NSC 관계자와 2시간 동안 발표 문안을 협의하고 문 대통령에게 전화 보고를 한 뒤 백악관에서 북미정상회담 성사 발표를 직접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은 백악관에 5시간 동안 머물며 먼저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등, 지나 하스펠 CIA 부국장 등을 만났고, 이어 매티스 국방장관 등 각료들에게 방북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간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5월 회동은 훗날 한반도 평화를 일궈낸 역사적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본격적 궤도에 들어설 것”이라고 전했다.

3

미 렉스 킬러슨 국무장관 교체...북미정상회담 영향에 촉각



신임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

한국시간 13일 밤 렉스 킬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경질이 전격적으로 발표되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킬러슨 장관과의 불화가 공개적으로 노출되어왔기 때문에 교체는 시기의 문제일 뿐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평가다. 후임은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내정되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부장관 지명자는 미국 행정부내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알려졌다. 미국 육군사관학교와 하버드법학대학원 출신의 폼페오 지명자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캔자스주 하원의원(공화당)을 지냈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으로 지난해 초 CIA 국장에 올랐다.

우리 정부는 4월 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정상회담 추진을 앞두고 이뤄진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수장 교체 배경과 이번 인사가 이들 연쇄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다만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에는 서훈 국정원장과 폼페오 CIA 국장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국 정보기관 간의 라인이 사실상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외교수장 교체가 북미정상회담 문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킬러슨 갈등	
13일 경질된 렉스 킬러슨 국무장관은 임기 중 여러 외교현안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	
<div>과거 킬러슨의 대화 시도 "시간 낭비" 지적; 이제 북한 김정은과 회담 추진</div> <div></div> <div>북한</div>	<div>핵 문제 외교적 해결 모색; 트럼프의 정상회담 합의 결정 나중에 들어</div> <div></div> <div>북한</div>
<div>이란의 핵 합의 이행 여부 재인증 거부; 합의 자체는 유지</div> <div></div> <div>이란 핵 합의</div>	<div>트럼프에 이란의 이행 여부 재인증 건의</div> <div></div> <div>이란 핵 합의</div>
<div>사우디의 '카타르 테러 지원' 주장과 봉쇄 결정 지지</div> <div></div> <div>카타르 사태</div>	<div>걸프 국가들에 카타르 사태 협상과 봉쇄 해제 촉구</div> <div></div> <div>카타르 사태</div>
<div>유엔에 파리기후협정 탈퇴 의사 통보</div> <div></div> <div>파리기후협정</div>	<div>미국의 탈퇴 반대</div> <div></div> <div>파리기후협정</div>
<div>아프간 주둔 미군 증원 발표하며 "전쟁 반드시 승리할 것" 선언</div> <div></div> <div>아프간 전략</div>	<div>미국의 목표는 "탈레반을 협상 테이블로 오게 하는 것"이라고 밝혀</div> <div></div> <div>아프간 전략</div>
<div>대선 개입 주장은 '거짓말' 비난; 개입 없었다는 푸틴 발표 "진심일 것" 평가</div> <div></div> <div>러시아 대선 개입</div>	<div>대선 개입으로 두 나라 국민 관계 손상했다고 비난</div> <div></div> <div>러시아 대선 개입</div>

트럼프와 킬러슨의 의견충돌, 출처: VOA

4

북한, 외화 부족을 타파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

최근 북한 당국이 외화 부족을 타파하기 위해 기존 제한을 완화하면서 외화벌이를 독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 NK는 내부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능력있는 사람들에게 사사여행(중국 등 해외 친척방문)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또 “보위원들이 어느 나라 장사꾼과 협력해서 번 돈이든 상관하지 않고 출처에 대해서도 따지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한국인과 거래를 통해 획득한 돈이라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이다. 과거 한국인과 연계된 사업이나 연락 관계가 발각될 경우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는 등 강한 처벌을 해왔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무역일꾼 출신 한 탈북민은 “당국에서 외화벌이 과제가 떨어졌을 때 무역 회사를 관리하는 보위원들이 사사여행을 권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보위부의 이러한 사사여행 권고가 일반 주민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며 “보위원과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무역회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또는 중국 친척을 통해 외화를 들여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얘기”라고 전했다.

북한에서 사사여행을 위한 비자 발급은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다. 일단 중국에 친척이 있어야 하고, 친척이 초청했다는 (중국)변방대 확인도장이 들어간 서류도 있어야 한다. 여기서 ▲친척관계는 5촌까지 허락하고 ▲한번 방문은 40일 또는 2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방문 후 3년이 지나야 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만 55세 이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주민이어야 한다. 아울러 사상동향에 문제없다는 인민반장, 동사무소, 기관기업소, 당, 보위성, 보안성 확인 작업도 거쳐야 한다. 특히 친인척에 교화소 출신, 탈북민이 없어야 한다. 심지어 외사과에 뇌물도 바쳐야 한다.

주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보위부가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사사여행을 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그만큼 북한의 외화 사정이 좋지 않다는 뜻이라고 위 매체는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외화벌이 과제 달성을 위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닌지는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외화벌이에 좀 더 집중하도록 독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 매체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에 파견된 근로자들이 최근에는 생활총화에 참가하지 않아도 되는 등 통제와 규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나 중국 등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들은 해당 조직으로부터 생활총화를 진행하기 보다는 한 시간이라도 나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지시를 받곤 한다고 한다. 사상무장을 강조하던 북한 당국이 자금 확보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북한 당국이 경험하는 재정적 압박감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로서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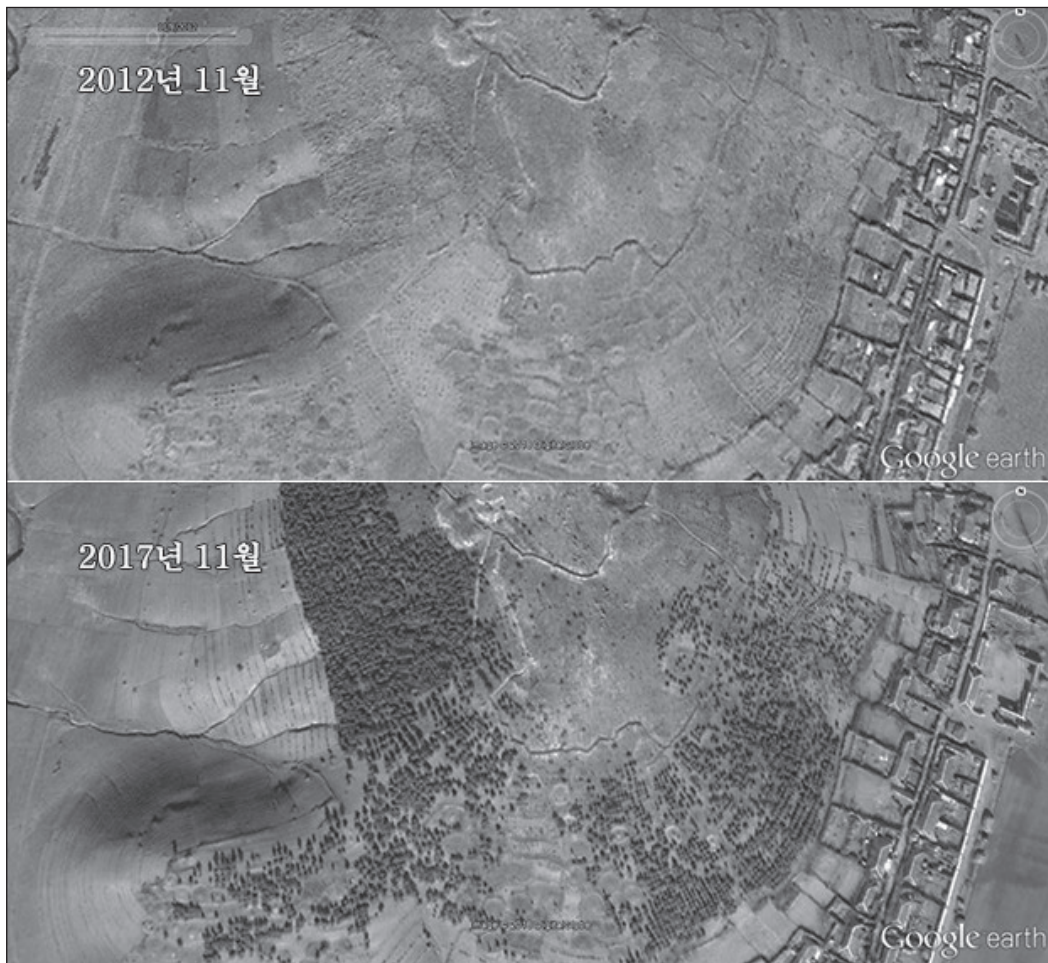
(참고: 데일리 NK)

5

1단계 마친 북 산림조성 사업, 성과는 여전히 의문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우선순위로 지시한 ‘산림조성 10년 전쟁’의 1단계 사업이 끝났다.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나무 심기 사업이 진행됐지만, 부족한 자원과 열악한 경제력, 주민의 생존 문제 등으로 뚜렷한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의 상업위성이 2017년 11월에 촬영한 북한 황해북도 신계군.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강조한 식수 사업의 변화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지역이다.



북한 황해북도 신계군에서 시행된 나무심기 사업의 전과 후를 비교한 모습.
(2012년/2017년) 사진 - 구글어스 캡처/커티스 멜빈 제공

황폐해진 산림을 10년 안에 복구한다는 명목으로 전국에 걸쳐 ‘벌목금지’와 ‘나무 심기’ 등을 강조해 온 가운데 신계군의 5개 지역에서도 식수사업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 당시 아무것도 없던 황량한 땅에 2017년에는 푸른 나무가 심어져 있는가 하면, 2007년 당시 나무가 없던 산과 언덕 등에도 적지 않은 나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산하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은 북한의 산림복구 사업이 황해북도 신계군뿐 아니라 북한 전국에서 시행됐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같은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다. 또 과거에는 기차길 옆과 같은 일부 지역에만 나무를 심었지만, 이번처럼 산림조성을 위한 나무심기는 위성사진에서 처음 확인했다고 멜빈 연구원은 덧붙였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북한은 국토환경보호성 산하 산림총국의 주도 아래 약 400개의 나무 농장과 산림관리소가 만들어졌다. 또 나무 농장 운영과 식수 사업 등에 북한 인민군이 투입됐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일 담당 부대를 직접 방문해 나무를 심을 만큼 산림복구 사업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멜빈 연구원은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산림복구 사업이 아직 온전히 뿌리를 내린 것 같지 않다고 말한다. 1차 나무 심기 사업이 끝났지만, 산림복구가 성공을 거두기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의 관측이다. 한국 평화문제연구소에서도 북한의 산림복구가 목표량 달성을 위한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을 뿐 정작 산림복구의 질적 성과는 저조하게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여전히 심각한 식량과 에너지 부족은 산림 황폐화를 부추기면서 산림복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산지 개간과 난방을 위한 땔감 채취 등이 산림 훼손의 주요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활동에 대한 규제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멜빈 연구원은 산림복구 사업이 그동안 산에서 땔기밭을 일궈오던 북한 주민의 삶의 터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의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도 산림복구 정책으로 산간지역 주민이 생존에 큰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북한 당국이 나무 심기를 위해 땔기밭 농사를 금지하고 산에 접근하는 것조차 단속하면서 취약계층이 주로 피해를 봤기 때문이다.

1단계를 마친 산림복구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북한이 3월 발행한 ‘KOREA’ 잡지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산림복구 사업을 위한 더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림복구 사업은 앞서 살펴본 문제점 뿐만 아니라 부족한 자원 탓에 일반 주민이 직접 많은 양의 나무를 준비해 심어야 하기에 주민의 불만과 갈등도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부족한 자원과 열악한 경제력은 물론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진행하는 산림복구 사업이 과연 성공을 거두기에 여전히 의문이 있다.

(참고: RFA)



제목: 햇별 장마당 법치 - 북한을 바꾸는 법
저자: 이종태
출판사: 도서출판 개마고원
출판일: 2017년 12월 4일
가격: 15,000원

최근 남한, 북한, 미국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뉴스를 볼 때 마다 깜짝 깜짝 놀라곤 한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남북대화, 북미대화가 성사되고 서로를 잡아먹을듯이 으르렁거리던 김정은과 트럼프가 덕담까지 주고받는 낯선 풍경이 현실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측에서는 도저히 나오지 않을 것만 같던 ‘핵 폐기’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는 오랜만에 한반도 정세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게 된다. 그렇지만 북한의 공공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어쨌든 이러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 속에서 남북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핵 폐기 관련 대화는 단시일에 끝나지는 않겠지만 남북 교류 관련한 사항은 아마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그 동안 대북 지원 사업이나 남북경협에 대해 사회는 물론이고 기독교계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았다. 북한에 대한 ‘퍼주기’ 논란도 있는 반면 북한의 아래로부터의 변화에 기여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북한 변화의 시작이 바로 일반 주민들, 즉 아래부터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대체로 동의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성 공단과 같은 경협을 통해, 민간 협력을 통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또는 진짜 의미있는 변화가 가능한가? 라는 질문이 중요하게 던져질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소개할 책, ‘햇별 장마당 법치’는 북한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중 하나로 ‘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법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법이 있지만 그 조항이 두리뭉실하거나 큰 기준만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 재판이나 판결이 형식적인 경우가 많고 법과 상관없는 처벌도 자주 이루어져 주민의 인권이 탄압 당하는 일이 발생한다.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의 질서를 타파하는 것이다 보니 기존의 법질서 또한 파괴되기 마련이고, 그 이후에는 법이 아닌 당에 의한 통치가 중요하게 부각되기 때문이다. 당과 지도자는 법에 제한을 받지 않는 상위의 존재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고 준수하기 보다는 당의 지침 하나, 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지침들이 모든 상황과 경우에 맞게 구체적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자의적인, 임의적인 적용의 위험이 높다. 특히 경제 분야에 오면 시장경제체제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경제 관련 규율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기준들이 우리 기준으로는 매우 부실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중국 등 시장경제를 받아들인 기존 사회주의 국가들은 경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고 그 법을 따라 질서를 세우는 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법을 통한 통치는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인 영역에도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비록 사회주의 국가로서 여전히 공산당의 통치 아래 있더라도 국가의 대부분의 질서 유지와 통치를 법을 세우고 준수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변화도 이러한 경제 협력을 통해 더 가속화 될 수 있다고 이 책은 진단한다.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외국 기업과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각종 협의와 분쟁의 조정을 위한 법의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이 시장과 사회를 법으로 통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구체적인 법을 통해서 질서 유지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 일반 북한의 주민들도 법치에 적응하게 되고 더 나아가 국가 전반의 체질이 바뀌어 좀 더 예측 가능하고 평화적인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 이 책은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될 사례로 개성공단과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제시하며 북한의 변화가 이 책에서 제시한 것처럼 이미 이루어져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이 책은 경제 교류 활성화를 통한 북한 내 법치의 발전이 모든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다만 북한 문제, 특히 핵 문제는 단순한 압박과 제재, 또는 대화 같은 1차원적인 접근으로는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인 만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 제재와 다자간의 대화 등을 병행하는 가운데 북한의 내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활동이 병행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방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제 협력인 것이고 그 가시적인 효과가 법치의 발전인 것이다.

최근 급속도로 해빙기를 맞는 남북관계를 볼 때 이 책은 어떤 방향으로 북한에 접근해야 할지에 대해 나름 의미있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적 틀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 주민들이 시장경제와 그에 따르는 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응해 간다면 아무래도 남과 북이 전보다 더 합리적인 관점에서 교류할 수 있게 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북한 주민들 가운데 법치가 점점 생활화 된다면 이전에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그랬던 것처럼 기존의 독재적 체제를 약화시키고 법의 통치 실현 및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책이 제시하는 바가 정말 얼마나 효과적이며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시장경제의 수용과 활발한 외자 유치, 그리고 법에 의한 통치가 발전하면서 국가 체질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공산당에 의한 일당독재 아래 각종 인터넷 검열부터 수많은 숫자의 공안들에 의한 통제와 감시가 여전하다. 중국의 인권 상황은 확실히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은 제한되고 있다. 북한은 중국보다 상황이 더 나쁘다. 일당 독재는 물론이고 주체사상을 통한 수령 우상화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시장경제 발전과 남북경협 등의 효과로 법의 위치와 역할이 강화된다고 해서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 또 얼마나 변화할 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단언하기 어려운 것 같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북한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이 책이 말하는 ‘북한 내 법의 역할의 확대’를 도모하자는 취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생각된다.

이 책의 또다른 장점은 상당히 쉬운 언어로 최근 북한의 장마당 경제와 이로 인한 주민 생활 변화, 또 북한과 외부와의 각종 경협과 이로 인한 효과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언급된 개성공단과 경협에 대한 관점이나 북핵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배제하더라도 그 동안 다루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북한의 경제 관련 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책이 북한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을 열어줄 수 있는 흥미로운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역사의 톱니바퀴 속에 새롭게 변화하는 남북관계 가운데 읽어볼 만한 책으로서 이 책을 권해본다.

북한 기도 제목

1. 한반도의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성사된 남북 및 북미 대화는 분명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남북과 미국 모두 각각 자신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대화에 참여할 것이기에 단시일에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기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각 대화와 회담을 주관하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 보다 더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정자들과 리더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대화에 참여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이번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의 진정한 해결에 한발자국 더 다가가고 더 나아가 통일의 그 날을 앞당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 북한의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인 공허함과 육체적 고통 가운데 주민들은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마약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약은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더욱 악화시킬 뿐이기에 크게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또 마약 확산이 중단되고 북한 주민들에게 마약 대신 필요한 의료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북한 마약 확산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불안 속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북에서도 잘사는 계층의 사람들이 쉽게 마약 중독에 빠진다고 합니다. 주체사상은 주민들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물질이나 약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믿습니다. 북한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나를 지으신 이가 계시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특별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이 세상에 두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북한에 복음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리고 갈급한 영혼들에게 기쁨의 복된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4.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가 한반도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임을 믿습니다. 북녘의 형제, 자매들이 더욱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디오 복음 방송을 비롯해 성경과 복음 서적 등 필요한 물자들이 계속해서 지원되고 또 생존을 위한 생활 지원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더 나아가 북한의 성도들이 앞으로 다가올 통일 한국의 귀한 일꾼이 되어 북한 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안전과 생활과 신앙을 위해 기도합니다.
5. 중국 내 북한 난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동북아시아의 정치적 지형이 변화하는 와중에도 여전히 탈북자들에 대한 체포와 복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복송하는 중국의 정책으로 인해 많은 탈북자들이 부모를 잃고, 자녀를 잃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습니다. 분단의 역사 가운데 희생된 탈북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을 돕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조선족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중국 당국이 하루 속히 탈북자에 대한 정책을 바꾸어 강제 복송을 중단하도록 기도합니다.